스무살 템플스테이 "K-컬쳐 열기 지속되는 힘 될 것"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2월 17일 20주년 기념식

사부대중 500여 명 '스무돌' 축하
진우 스님 "대한민국 풀무될 것"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로 축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2월 17일 열린 20주년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2월 17일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템플스테이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를 표창했다.

스무살 성년이 된 템플스테이를 축하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응원하는 법석이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은 12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마음을 더해온 20년, 인연을 향한 100년'을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단장 원명 스님의 템플스테이 20년 경과보고로 문을 열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를 계기로 33개 사찰에서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2022년 현재 전국 150여 개 사찰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브랜드로 성장했다.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 세계 성공적인 5대 문화관광상품'으로, 2010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아이콘'으로 선정되는 등 전 세계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편 국위를 선양하는 성과를 이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던 2020~2022년에는 '치유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공익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템플스테이는 안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여가선용 및 문화 향수권 증진에 기여하고 밖으로는 전 세계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 결과 205개 나라에서 템플스테이를 다녀갔고 누적 연인원은 6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온 국민들의 사랑과 전 세계의 성원 속에서 성년이 된 템플스테이가 문화체험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아픔과 국민들의 고통을 보듬는 적극적인 사회공익 수행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템플스테이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컬쳐' 열기가 더욱 커지고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대한민국의 풀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템플스테이의 지난 행보에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템플스테이는 우리 국민의 심신건강에 기여하고 종교를 초월해 세계인에게 전통문화를 알리는 대한민국 홍보대사"라면서 "국민들의 행복추구와 문화복지 실현은 물론 자랑스러운 우리문화를 세계 곳곳에 전하는 귀한 자산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템플스테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종민 前 문체부 차관, 불교문화사업단 역대 단장 스님, 전국 템플스테이 종사자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템플스테이 20주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20년간 템플스테이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도 진행됐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코레일관광개발과 하나투어에 감사패를, 천태종 총무원장인 무원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황찬익 조계종 前 포교과장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템플스테이 발전에 기여한 전임 단장 1. 3대 현고 스님, 2대 현진 스님, 6대 지현 스님, 9대 진화 스님, 10대 성효 스님, 11대 수암 스님, 12대 원경 스님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순천 송광사에 돌아갔으며 사찰음식 명장 계호 스님, 대안 스님, 선재 스님, 우관 스님, 적문 스님, 정관 스님이 총무원장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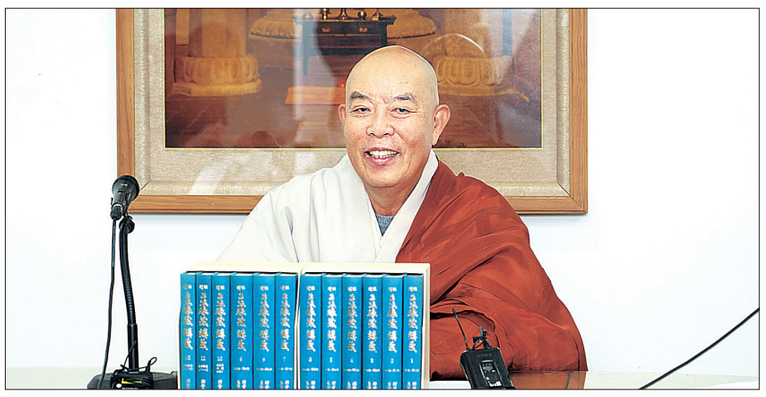
이 밖에도 각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지스님 부문에서는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 지도법사는 각안 스님(前 송광사 포교국장), 묘향 스님(내소사), 보행 스님(심원사), 선우 스님(진관사), 혜아 스님(회암사)이 수상했으며 실무자 부문은 곽일민, 김경숙, 김태영, 안혜란, 이동익, 이정옥 씨가 수상했다. 특별공로상은 4대 포교원장인 도영 스님이 수상했다.

이날 2부 축하 공연은 미디어 타악공연의 좋은 친구들, 한국 전통 소리의 계승과 발전에 앞장서는 소을소리판, 싱어송라이터 루시드 폴과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의 합동무대, 찬불포교사 LMB싱어즈, 풍물판국과 아리랑을 선보인 야단법석 무대로 진행됐다.

40년 역주 원력 결실, 보광 스님 〈정법안장 강의〉

12월 15일 완간 기념 기자간담회

선의 교과서 도겐선사 〈정법안장〉
난해한 일본 고전어, 쉽게 풀어내
266명의 불교학자 번역에 동참해
"목숨이 담겨 있는 결과물" 평가


보광 스님이 12월 15일 40년 원력이 담긴 〈정법안장 강의〉를 공개했다.

일본 선의 핵심 텍스트로 꼽히는 〈정법안장〉은 일본 조동종 개산조인 도겐(1200~1253) 스님이 중국 유학 중 체험한 송(宋)대 선문화 뿐만 아니라 일본 선문화, 당시 동아시아 사상의 흐름과 문화 등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것으로 꼽힌다.

특히 간화선 중심의 한국 선문화에는 또 다른 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훌륭한 지침서이기도 하다. 성철 스님, 서옹 스님, 혜암 스님 등 고승들이 〈정법안장〉 읽기를 권유하고, 법정 스님이 〈정법안장〉의 한글본을 고대했던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다.

이런 〈정법안장〉이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 스님의 40년 원력과 30년 노력으로 드디어 완간됐다. 바로 〈역주 정법안장 강의〉다. 40년이란 세월을 거쳐 〈정법안장〉이 완간된 것은 95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 뿐만 아니라 일본 고전어로 되어 있어 일본 사람들도 읽기 난해했기 때문이었다.

1980년 일본 유학 당시 교토의 불교서점서 수많은 〈정법안장〉 연구서적을 보고 놀란 보광 스님은 〈정법안장〉 역주에 대해 원력을 세웠다. 보광 스님이 유학을 마치고 1993년부터 번역과 강의를 하며 한국에서도 드디어 〈정법안장〉 30년 역주 장정이 막을 올렸다.

보광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웠기에 진척은 더뎠다.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교차 검증하였으며, 영문본과의 비교분석 등을 진행했다. 스님과 함께 번역에 나선 노학자들은 세상을 떠났고 학생들은 석 · 박사를 거쳐 교수가 됐다.

이렇게 필생의 사업으로 진행한 〈역주 정법안장 강의〉 1권부터 9권까지는 도겐 스님의 〈정법안장〉 번역과 주석, 강의 내용이 담겼으며, 10권은 총목차 해제, 11권과 12권은 사전으로 주석이 집대성됐다.

보광 스님은 〈역주 정법안장 강의〉 1권에서 밝혔듯이 이 번역사업을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했다. 12년간 95권 중 30권을 번역해 2006년 〈정법안장〉 10권 분량을 담아 〈역주 정법안장 강의〉 1권으로 펴냈다. 당시 스님은 완간까지는 약 30여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06년 1권에 이어 2012년 2권이 나왔으며, 2020년 3,4권이 나왔다. 그리고 2년 만인 2022년 12권이 완간됐다.

그 이면에는 보광 스님의 이러한 원력에 힘을 보탠 불교학자들이 있었다. 총 266명의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데 이어 결정적으로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등이 편찬위원회를 거쳐 4년간 교정과 윤문, 증의에 동참했다.

보광 스님은 12월 15일 완간 기자간담회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이 담겨 있다"고 평가하며, 번역에 참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이어 각 책에는 그동안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까지 함께 담았음을 소개했다.

스님의 원력이 담긴 〈정법안장〉은 한국선에서 보는 것과 다른 다양한 각도의 공안과 조사들의 행적을 살피고 해석한다. 대중공양 예법과 같이 중국 선문화나 한국 선문화에는 전승되지 않는 선문화도 함께 담겨있어 한국 선문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님은 "정법안장은 중국선종어록 뿐만 아니라, 대승경전, 〈아함경〉 등 방대한 자료를 다양하게 인용하여 불교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책을 읽고 많은 선지식들이 배출되기를 기원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인력 강점 한마음선원, 전법 인재 양성을"

대행선연구원, 12월 17일 제13회 계절발표회

백도수 교수, 선원 전법방안 제안
전법교육기관과 플랫폼 구축 필요
법장 스님, '범망경' 계체론 분석해
"계체론, 범망경 발전 중요한 토대"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가 12월 17일 열린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행 선사가 창건한 한마음선원이 지속 · 발전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전법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토대로한 전법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12월 17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 13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백도수 능인대학원 대학 교수(한국불교학회장)는 '한마음선원의 전법토대와 전법 실천방안 고찰'을 통해 한마음선원의 전법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실천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 전법환경을 'SWOT(강점 · 약점 · 기회 · 위기) 분석'으로 살핀 백 교수는 승려 수와 신도의 강한 신심, 연구 · 신행 등 다양한 활동을 강점으로 꼽았으며, 약점으로는 승려 · 재가 교육, 인터넷 관리, 창의적 대안부족, 외국인 전법 역량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회로는 연구활동, 국제화 가능성, 명상상담 활성화를, 위기로는 종교인구 감소, 불교 위상 축소, 대행 선사 열반 등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백 교수는 잘 훈련된 전법 전문가 양성을 최우선적으로 제안했다. "한마음선원은 150여 비구니와 비구스님, 전법활동에 참여할 신도, 그리고 선원만의 전법자료와 연구 인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 백 교수는 "150인의 비구니와 비구스님들은 전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 전법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법 노하우와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한마음전법사' 양성은 2대 한마음선원 발전의 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전법교육기관의 형성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행선연구의 체계와 한마음선원의 국제화 토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은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를 통해 〈범망경〉 계체론을 대표하는 주석서인 〈지의소〉 〈원효기〉 〈법장소〉를 비교하고, 이들이 〈범망경〉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폈다.

법장 스님은 "〈지의소〉 〈원효기〉 〈법장소〉에 나타난 계체론은 불성인 마음을 토대로 하며, 그 존재성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 유무를 떠난 것이라고 보는 공통된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망경〉에 대한 다양한 계체론은 후대 의적, 태현 등으로 넘어가 더욱 긴밀한 형태로 융합된다"며 "이는 〈범망경〉이 동아시아 대승보살계를 대표하는 경전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 논평자로는 이자랑(동국대), 고승학(동국대), 서재영(성철사상연구원), 김봉래(BBS불교방송)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이 자리에서 대행선연구원과 한마음과학원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두 학술대회 모두 대행 선사의 사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뜻 깊은 자리였다"면서 "다양한 학술대회와 발표회를 통해 국내외 학자들이 꾸준히 불교와 대행선 연구에 인연을 맺어가는 점은 큰 보람이다. 오늘 발표자와 논평자에게도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대행선연구원이 창립된 지 6년 5개월이 됐다. 지난 7월부터 원장 소임을 맡았는데 어깨가 무겁다"면서 "제가 이생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면 소명으로 받들어 심부름을 하려고 한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중앙종회, 내년 예산 44억 100만원

12월 14일 전통문화전승관서 제146회 정기회 개최

종단의식집 편찬, 태고문화전승연구소 설립 등 결의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12월 1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46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내년 예산 44억 100만 원을 확정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했던 △동방불교대학 개교 40주년 기념행사 △종단의식집 편찬 △종단 기록유산 보존자료 아카이브 사업 실시 △태고문화전승연구소 설립 △영산문화축제와 태고문화축제 등 사업계획도 결의했다. 이에 앞서 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서 "어느 단체를 불문하고 건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첫 걸음은 투명한 재정이 밑바탕 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중한 종도들의 자금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태고종이 더 존경과 신뢰를 받고 더 책임감 있는 종단, 역사의 큰 종단이 될 수 있도록 종회의원과 종도들의 성원을 바란다"며 "2023년도에는 해야 할 일이 더욱 많다. 특히 1/4분기에는 제 28대 총무원장 선거를 차질없이 치러야 하는 등 그 어느해보다 크고 중요하고 묵직한 일들이 많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한국청소년聯, 청소년 포교 재도약 다짐

12월 13일, 단체명칭 변경 기념식

선일 스님 "세계화 활동 펼치겠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 전법 운동에 앞장서온 한국청소년연합회가 출범 56주년을 맞아 단체명 변경과 함께 재출발을 선언했다.

한국청소년연합회(총재 미광 선일, 이하 한청연)는 12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56주년 및 단체명칭 변경 기념의 날'을 개최했다.

1966년 청소년교화연합회로 출발한 한국청소년연합회는 운문 스님과 안병호 거사, 황해진 변호사가 뜻을 모아 설립한 한국 최초 불교 청소년 단체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15개 지부에 어린이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9개 산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4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반세기가 넘는 활동을 이어온 한국청소년연합회는 청소년교화연합회의 '교화'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이 현대사회에 팽배함에 따라 이날 한국청소년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기념식에서 총재 미광 선일 스님은 조직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선일 스님은 "후원이사와 홍보 이사 영입, 해외 지부 활성화, 한청년 회원 확보 등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전국 불교조직을 잘 활용해서 청소년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세계화 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연합회는 숙원사업인 회관건립을 위한 천불봉안 동참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은행 023501-04-022101 예금주 (사)한국청소년연합회 임은호 기자